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지난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세대의 등장이다. 과거 선거에서 스윙보터로서 중도층의 영향은 많이 봐 왔지만, 2030세대의 영향은 조금 낮설게 느껴진다. 과거에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시기가 있긴 했다.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 2030 세대인 386세대와 X세대다. 당시는 2030세대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유권자 구성 비율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40대는 20%가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03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든다.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구성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50%대 이하로 감소하더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또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해 투표율이 낮았다. 반면 40대의 구성비는 20%대로 늘어났다. 그러자 40대는 40%대를 차지하는 당시 2030세대와 30%대의 50대 이상 세대의 중간 위치에서 선거판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40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스윙보터로 2030

2030세대의 등장

세대가 부각되었다. 그럼 왜 다시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는가?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줄었다. 35%선도 무너졌다. 유권자 수가 더 줄었는데도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은 2030세대의 높은 정치 참여율과 정치 성향에서 40대와 다른 유행성 때문이다.

그럼 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을까? 그 이유는 2030세대가 처한 구조화된 저성장 시대 때문이다. 이들은 IMF 이후 세대로, 성장기부터 취업 등 사회 진출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서도 스펙부터 쌓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정치권에 많은 일처리를 만들어 줄 것과 공정한 경쟁 관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공정' 문제가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정유라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투표율뿐 아니라 투표 성향도 바뀌고 있다. 과거 2030세대인 80년대 386세대와 그 후배로 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는 선배의 영향을 받아 이념 성향이 강했다. 당시 이념성의 핵심은 역사적으로는 남북한 정통성 논쟁, 경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제국주의론으로 전개됐다. 대체로 자유주의적 경쟁을 비판적으로 봤으며 평등을 요구했다. 이런 이념성으로 인해 40대의 표심은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표심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유권자 수도 20%가 되지 않아 캐스팅보터 역할도 못한다.

반면 IMF와 2000년대 이후 대학을 다닌 2030세대

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스펙을 쌓으며 일찍이 사회 진출을 준비했다. 정치 사회 의식에 있어 선배보다는 대졸인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다국적화와 월드컵 4강 등을 경험하면서 경쟁의 수용과 남북 역사의 정통성,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40대와는 달랐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탈 이념성의 특징을 갖고, 선거에서 이념적 프레임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공동체적 개인의 행복 추구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고정층이 되지 않는다.

2030세대는 한때 40대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40대와 달리 20대는 이재명을 더 지지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19대 대선과 그 이후 지방선거 및 총선 등에서는 40대와 비슷한 투표 성향을 나타냈다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선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2030세대는 진보의 고정층인 40대와 달리 스윙보터의 모습을 보인다.

매년 2030세대가 60만 명 이상 늘어나고, 고연령층이 40만 명 이상 사망하면서 한 해에만 100만 명 전후의 유권자 변동이 진행된다. 그럴수록 2030세대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2030세대는 더 이상 단순히 경쟁형치가 부족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세대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 무시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다. 2030세대의 등장은 정치적 현실이다.

종교칼럼

노래하는 삶



임형준
순천 빛보교교회 담임목사

아주 어렸던 지난 시절들을 회상해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은 대화의 대상이었다. 나무와 풀잎, 꽃들과도 인사나 대화를 나눴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강아지와도 소통하며 안부를 묻곤 했던 기억이 아른거린다.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하늘을 나는 종달새의 노래를 따라 뜻도 의미도 없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들도 있다. 이렇듯 어렸을 때는 자연과 교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금과 다른 자연스러웠는데 성장하면서 우리는 대화의 대상과 관심을 현실 세계로 이동킨다.

한편으로 어린 시절의 감정과 추억을 동심이라고 표현하고 그때의 일상들을 동화같은 이야기라고 정의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허구의 세계로 간주한다. 대 자연을 향유하기에 적합한 인간의 오감, 즉 시각·청각·미각·후각·촉각은 오직 현실 세계의 범위에서 인지되는 것만이 타당한 상식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자리를 잡는다. 즉 인간의 오감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을 오히려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시인들은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볼 것을 그렇게 애써 설득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상은 현실과 허구가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삶의 현장이다. 마음의 눈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밤 한 그릇과 옷 몇 벌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파는 것이 정당한 노동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한 불균형한 삶은 치열하게 현실과 경주한다. 더러 성공의 화려한 메달을 얻은 것 같지만 남는 것은 인생의 상처와 허무함이 가득한 삶의 보따리이다. 자연의 언어와 마음의 눈을 상실한 인간은 낡고 병든 자신의 허망한 삶을 발견하고 비로소 잃어버린 자연의 언어들을 기억해 낸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자연과의 언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길들여진 규칙적인 언어가 아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는 살아 움직일 것이다. 흥얼거림도 좋고 박자가 맞지 않아도 좋다. 내면의 소리를 내어 자연을 그냥 노래해 보자.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지금 당장 노래를 불러 보자. 현실에 주눅들고, 삶에 지쳐 버려진 황무지 같은 일상을 개간하고 뺨뺨 말라 시들어 가는 꿈의 원형을 찾아내자. 노래로 쟁기질을 하여 마음의 밭을 파헤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 소멸되어 가는 생명의 작은 씨앗을 찾아 뿌려 보자. 농부가 말라 죽은 것 같은 씨앗을 심어 노래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

이처럼 노래는 심폐소생술처럼 죽어 가는 마지막 호흡을 발버둥치며 연장시켜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시켜 주는 통로가 된다. 인디언들은 자신이 힘들고 아프면 자연으로 들어가 자신의 친구인 카다린 나무에 등을 기대선다고 한다. 나무와 대화하고 노래하며 심신의 병을 치유하고 회복한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산이 살아 있고 나무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들도 살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노래로 표현한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한 구절이 소개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골3:16)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새 사람의 특징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노래의 결과는 완전한 치유이며 회복이다. 즉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찾았다는 것이다. 찬미하는 자는 영혼이 깃털 같이 가벼워 새가 하늘을 훨훨 날며 노래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은 노래 부르는 자를 더 가까이 두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제 서서히 리듬을 타보자. 어깨를 들쭉이며 리듬에 맞춰 소리를 내어 보자.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실이 무겁고 압담할수록 더 많이 노래하자. 절대 우리의 노래를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자.

기고

‘희망 교실’과 함께 성장해 가는 학생과 교사



김세미
문산초 교사

교사와 학생의 행복한 동행, '희망 교실'과 함께한 지 네 번째 해다. 처음엔 보편적 복지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학생들과의 감정 교류가 풍부해지고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느껴진다.

올해도 새 학년이 시작돼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희망 교실을 계획하다 보니, 작년엔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3학년과의 인연은 아이들의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업무지원팀으로 교당(교과전담) 교사를 맡게 돼 1학년 5개 학급의 '안전한 생활' 수업을 하면서 각 반의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이 먼저 눈과 마음에 들어왔다. 그 인연이 이어져 이듬해 2학년을 담임했고, 3학년으로 진급한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봐 왔기에 아이들의 성향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 담임교사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아이들 중 유독 마음이 쓰인 소정이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동생과 함께 사는 아무진 여학생이

다. 1학년 안전 선생님이로 만나던 시절, 소정이는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으면 때를 쓰며 바닥에 엎드려 있거나 옆 친구를 방해하고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랑이로 인해 당황스럽고 지칠 때도 있었다. 그런데 3학년 때 담임교사로 함께하면서 소정이의 그런 행동들이 보고 싶은 엄마의 공백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다. 3월 초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문자와 전화, SNS를 통해 소정이와 소정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나는 소정이의 학습뿐만 아니라 돌봄도 챙기는 선생님이자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화와 SNS로 가정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나날이 계속되자 바쁜 소정이 아버지와의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코로나19라는 불안한 상황에 긴급 돌봄이나 학교에 나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소정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담임인 내 몫이었다. 소정이 아버지와 겨우 통화가 될 때마다 길어지는 온라인 학습에 아이들 끼니와 생활, 학습 챙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일단 담임과 학교를 믿고 소정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온라인 학습 중 소정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는 학습조력자가 없어 e학습터와 화상수업을 어떻게 할 줄 몰라 학습 진행이 어려운 소정이를 따로 학교에 나오도록 해 학습을 지원했다. 제대로 아침과 점심을 챙겨 먹지 못한 아이의 끼니는 긴급 돌봄과 간식으로 해결하곤 했다. 선생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찍 학교에 나와 이런저런 수도도 펴고 함께 공부하니, 온라인 학습 미참여로 그렇게 속을 썩이던 아이가 마냥 예쁘고 기특하기

만했다. 드디어 등교하는 날, 엄격한 방역과 거리 두기로 긴장된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마스크와 개인 물품, 개인 학용품조차 전혀 갖추지 않은 몇몇 아이들로 인해 정말 난감했지만 해결책이 있었다. 희망 교실이였다. 유독 많은 비가 내린 지난여름, 소정이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의 돌봄이 원만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위생·안전 물품과 우산 등을 구입해 전달했다. 특히 사제동행 시점에 나들이를 가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동화책과 수학 학습지를 구입해 온라인 학습으로 커진 학습 공백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었다. 방학을 앞두고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보내야 할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돼 마스크와 유산균을 선물하며 안전한 방학을 약속하기도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이들과 안전하게 케이크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만든 케이크를 가족 선물로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많이 행복했다는 아이들의 말이 그 행복이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지난해 희망 교실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야구와 축구 경기, 공연 관람 등의 문화 체험과 다양한 멘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들을 항상 생각하고 챙기고 있음을 느끼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체감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희망 교실과 함께하며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올해도 더 많은 희망 교실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된 없이, 교사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꿈과 희망이 자라기를 기대한다.

社說

30년에 걸친 애타는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의료 서비스는 생활 형편이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다. 한데 전남 지역은 의료 취약계층과 의료비 지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최하 위권이다. 이처럼 열악한 의료 여건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전남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등록 장애인 비율이 각각 23.7%, 7.6%로 전국 최고이다. 그만큼 의료 수요가 많은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2.08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뇌혈관·소아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 최하위다. 목포·순천·강진 등 세 곳의 공공의료원에 필요한 의사 정원은 51명이지만 현재 인력은 36명뿐이다.

또한 의사가 없는 섬은 164곳으로 전체 유인도의 60%나 되며 이 때문에 환자 이송 중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의료 장비나 시설 역시 취약해서 매년 80만

명의 주민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시도에 상급 종합병원을 찾고 있다. 이들이 쓰는 의료비만 1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정부에 줄기차게 의대 신설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았을 때 가장 먼저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한데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한 뒤 아무런 진척이 없어 자칫 무산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열악한 의료 환경이 인구 감소 이어져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최근 자체적으로 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의료 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 취약지 해소다. 정부는 전남 도민의 30년에 걸친 애타는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시능만 하는 처벌로는 산재사고 못 줄인다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때마침 지난 1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 시행 이전이어서 그런지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도 너무 경미하다. 광주 일보가 지난해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의 산재 판결 23건을 전수분석해 보았더니 기소된 28명의 사업주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마저 항소심 재판에 가서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1심 재판부터 대다수 사업주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수감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벌금 액수도 노동자 한 명당 평균 527만 원에 불과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보험금을 받았고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고 있지만 노동자의 목숨값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벌금이 적게 든다는 인식을 가진 사업주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無等鼓

올해 출범할 예정이었던 유럽축구 슈퍼리그가 무산돼 '삼일천하'로 끝났다. 출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가입을 약속했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집단 탈퇴가 이어졌고, 참가를 약속한 12팀 중 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유벤투스만 남았다. 이와 관련 BBC는 "슈퍼 리그 출범부터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집단 탈퇴까지 걸린 3일은 넷스에서 햄버거가 소화되는 시간보다 더 짧았다"고 조롱했다.

슈퍼 리그는 당초 15개 팀으로 창립한 뒤 해마다 5개 팀을 더해 총 20개 팀으로 시즌을 치른다는 구상이었다. 스페인에선 레알마드리드·

를 끌어들이야 야심차게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팬들은 '돈에 구단을 판 행위'라며 맹비난에 나섰고 각종 축구협회도 반발했다. 게다가 '슈퍼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다'는 FIFA의 경고가 이어졌다. 손흥민의 카타르 월드컵 출전 불가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영국 정치권에서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구단들은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우려하는 것은 슈퍼 리그 출범이 기존 축구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데 있다. 기존 유럽 축구는 동네축구 팀도 최고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체제'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8부 리그 팀에서 치류용 부목을 만들며 축구하던 제이미 바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드는 등화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도 이 '승강 시스템' 덕분이었다.

슈퍼 리그에 대한 구단주들의 탐욕은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작은 구단 없이 큰 구단이 존재할 수 없으며, 팬 없이도 축구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